■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05-128.
http://doi.org/10.17948/kcs.2020..86.105

【특집: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축적과 활용】

조선본 『가례(家禮)』의 특징과 의의

정현정(鄭現貞)*

목 차

1. 머리말
2. 조선에서 『가례』의 간행과 판본
3. 조선본 『가례』와 조선 시대 『가례』 연구
4. 맺음말

국문초록

성리대전본 『가례』는 조선에서 『가례』 연구와 실천의 저본이었지만, 그대로 답습되지만은 않았다. 조선에서 간행된 『가례』로서 간행 시기와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판본은 성리대전본, 가례대전본, 무술년본, 병오년본, 기묘운각본 등 5종이 확인된다. 이러한 판본들은 조선에서 『가례』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성리대전본 『가례』를 객관화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1726년[병오년] 함경감영에서 간행된 '병오년본'과 1759년[기묘년] 운각(芸閣)에서 무신자 활자본으로 간행된 '기묘운각본'은 여러 『가례』 판본들에 대한 비교 검토, 조선 시대 『가례』 연구의 적극적 반영, 그리고 문헌 고증을 통해 본문의 오탈자와 오류를 판정하고 교정 사항을 밝힌 난상(欄上) 두주(頭註)를 포함하고 있다. 병오년본과 기묘운각본은 조선본 『가례』 정립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판본으로서, 조선 시대 『가례』 연구 성과의

*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축적과 기존 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산출된, 조선 시대『가례』연구의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가례(家禮)』,『성리대전(性理大全)』,『가례의절(家禮儀節)』, 기묘운각본(己卯芸閣本).

1. 머리말

주희(朱熹, 1130-1200)는 여러 종의 예서(禮書)를 저술하였다. 그는 부친상을 치른 뒤 17~18세에『제가제례고편(諸家祭禮考編)』[失傳]을 엮었고, 이를 바탕으로 30대 후반-40대 중반 사이에『제례(祭禮)』[失傳]를 완성하였다. 40대 중반 이후에는 당·송대의 제례 문헌들을 모아『고금가제례(古今家祭禮)』[失傳]를 편찬하였다. 주희는 또 삼례서(三禮書)를 읽고『의례(儀禮)』와『예기(禮記)』의 결합을 구상하였다. 이 기획은 문인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예서 수찬 작업은 '예경(禮經)의 불완전한 부분을 역대의 주소(註疏)와 다양한 문헌들로 보충하는 것'으로서, 주희 만년의 절실한 과업이자 유업이었다. 이 예서는 문인들에 의해『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로 완성되었다.

『가례(家禮)』는 주희가 모친상을 계기로「상례(喪禮)」,「제례(祭禮)」를 구성하고 여기에「관례(冠禮)」,「혼례(昏禮)」를 합하여 만든 것인데, 원고를 미처 다듬지 못한 상태에서 분실하였다가 그의 사후에 되찾은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주희 생전에『가례』에 대해 직접 언급한 흔적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의 친작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가례』는 대체로 주희의 저술로 간주되어 그의 예서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가례』의 간행과 판본에 대한 아즈마주지(吾妻重二)의 연구에 따르면,『가례』는 1211년과 1216년「통례(通禮)」·「관례」·「혼례」·「상례」·「제례」등 5편의 구성으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주희의 제자인 양복(楊復)은『가례』가 불완전하다고 여기고, 이를 보완하고자 주희의 관련 언급들 및 경전과 주소의 내용을 각 조목 아래에 주석으로 달았다. 이것이 양복의『가례부주(家禮附註)』이다. 그러나 1245년 주복(周復)은『가례부주』가 간략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양복의 주석을 다시 본문에서 분리하여『가례』의 뒷부분에 '부록'으로 두었다. 이것이 현

전하는『가례』가운데 가장 오래된 송각본(宋刻本)『가례』이다. 송대의 또다른『가례』판본으로는 양복과 유해손(劉垓孫)의 주석을 수록하고 몇 종의 그림을 덧붙인『찬도집주문공가례(纂圖集註文公家禮)』가 있다.[1]

이후 원대에 황서절(黃瑞節)은『가례』에 양복의 주석과 유해손의 주석, 그리고 자신의 주석을 덧붙이고 28종의 그림을 첨부하여『주자성서(朱子成書)』에 수록하였다. 명대에『가례』는『성리대전(性理大全)』에 수록됨으로써 각지에 반포되었고 학교의 교재가 되었다. 성리대전본『가례』는 양복, 유해손, 황서절, 유장(劉璋) 등의 주석을 포함하고 28종의 그림을 첫머리에 두고 있으며 총 4권의 편차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그 성립 과정에서 주자성서본『가례』에 상당 부분 의거한 정황이 보이지만[2] 성리대전본『가례』는 그 이전까지의『가례』연구를 풍부하게 집성하였다는 의의가 있다.[3]

성리대전본『가례』는 특히 조선에서『가례』연구의 대표적인 저본이었다. 조선 시대『가례』의 전래 및 간행, 보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가례』는 이미 고려 말 전래되어 유행하였고 조선 초에는 조정에서『가례』실천을 장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벼슬하는 사람들에게『가례』로 시험을 보도록 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때 어느 판본이 전해지고 활용된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조선 태종3년(1403)『주자성서』가 도입되었지만 주자성서본『가례』가 활용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세종1년(1419) 이후『성리대전』이 여러 차례 수입, 간행되는데, 이를 계기로『가례』는 널리 보급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된다.[4] 성리대전 도입 이후 조선에서의『가례』판본들은 모두 성리대전본

1) 아즈마주지(五妻重二),「『家禮』의 刊刻과 版本:『性理大全』까지」,『동양예학』제4호, 이승연 번역, 동양예학회, 2000, 46-67면 참조.

2) 아즈마주지는 성리대전본『가례』의 그림들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주자성서본『가례』를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글, 70면.

3) 성리대전본『가례』와 관련한 쟁점 및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을 들 수 있다. 정현정,「구준(丘濬)『가례의절(家禮儀節)』의『가례(家禮)』재구성에 대한 고찰」,『대동문화연구』제78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정현정,「조선(朝鮮)에서「가례도(家禮圖)」이해의 흐름」,『한국실학연구』제30호, 한국실학학회, 2015.

4) 최경훈,「朝鮮時代 刊行의 朱子 著述과 註釋書의 編纂」,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9, 18-19면; 장동우,「『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동전(東傳) 판본(版本) 문제를 중심으로」,『국학연구』제16호, 한국국학진흥원, 2010a, 186-188면.

『가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조선의 『가례』 연구들은 성리대전본 『가례』에 의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에서 간행된 『가례』로서 간행의 시기와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판본은 5종이 확인된다. 이 판본들은 공통적으로 성리대전본 『가례』의 구성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체제와 세부 내용에서 다소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조선에서 수 세기 동안 『가례』 연구가 진행되고 『가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심화됨에 따라, 연구의 저본이었던 성리대전본 『가례』가 비판적으로 극복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에서 간행된 『가례』의 판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선 시대 『가례』 연구의 성과가 『가례』 판본에 반영됨으로써 '조선본 『가례』'가 성립되는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조선에서 『가례』의 간행과 판본

『가례』의 도입은 늦어도 14세기 초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시기에 어떠한 판본이 전해지고 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이다. 1403년(태종3) 10월에는 『주자성서』가 전해졌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주자성서본 『가례』가 간행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조선에서 『가례』 간행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03년(태종3) 8월 "『가례』 150부를 평양에서 인쇄하여 반사(頒賜)하였다."라고 하는 태종실록의 기사이다.[5]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어떤 판본인지는 알 수 없다.[6]

1419년(세종1) 이후 『성리대전』이 여러 차례 수입되고부터 『가례』의 간행과 관련한 사항은 명확해진다. 조선에서 『성리대전』은 1427년, 1531년, 1537년, 1644년, 1744년에 걸쳐 간행된다. 1563년과 1611년에는 『성리대전』에서 「가례」 부분인 권18-권21만을 독립시켜 간행한 4권본의 『가례대전(家禮大全)』이 등장한다.[7] 성리대전본 『가례』와 가례대전본 『가례』의 일부를 살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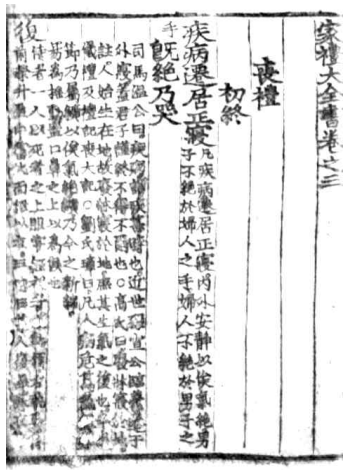
5) 『太宗實錄』 6권 태종 3년 8월 29일 갑술 1번째기사. "印『家禮』一百五十部於平壤府而頒之."
6) 장동우, 앞의 글, 2010a, 186-187면.
7) 최경훈, 앞의 글, 19-21면. 한편 장동우에 따르면, 『성리대전』에서 독립된 『가례』는 『가례대전(家禮大全)』 혹은 『가례대전서(家禮大全書)』라는 제목으로 유통이 되므로 통칭하여 '가례대전본'이라

면 다음과 같다.

〈성리대전본[4권]〉



〈가례대전본[4권]〉
간행: 1563(곡성현), 1611(함흥부)



또『가례』는 1658년[무술(戊戌)] 삼척부(三陟府), 경성부(鏡城府) 등지에서 간행된다.[8] 이 판본의 특징은 성리대전본・가례대전본에 근거하면서도 기존의 4권 체제에서 7권 체제로 변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4권 체제와 7권 체제는 내용상 동일하지만, 편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표1〉『가례』'4권본'과 '7권본'의 편차 비교

4권본(성리대전본・가례대전본)	7권본(무술년본)
①「家禮圖」	「家禮序」「家禮圖」
	①「通禮」
②「家禮序」「通禮」「冠禮」「昏禮」	②「冠禮」
	③「昏禮」

한다. 장동우, 앞의 글, 2010a, 193면. 가례대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원문보기가 가능하다.(청구기호: 한貴古朝29-191)

8) 본 논문에서는 이 판본을 '무술년본'으로 칭하고자 한다.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①삼척부 간행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서고(청구기호: 奎古 281 2 1; 奎古 281 2 2), 삼척시립박물관 ②경성부 간행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서고(청구기호: 想白古 181.1346 J868g).

③「喪禮」 初終 ~ 反哭	④「喪禮」 初終 ~ 聞喪・奔喪
	⑤「喪禮」 治葬 ~ 反哭
④「喪禮」 虞祭 ~「祭禮」	⑥「喪禮」 虞祭 ~ 書式
	⑦「祭禮」

무술년본『가례』에서 보이는 7권의 편차는 명대 구준(丘濬, 1420-1495)이『가례』의 본문을 행례(行禮) 절차의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관혼상제와 관련한 실용적, 이론적 자료를 부가한『가례의절(家禮儀節)』의 편차[9]와 유사하다.『가례의절』은 1518년(중종13) 김안국(金安國, 1478-1543)에 의해 조선에 유입되어 중종대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되고 이후 1555년(명종10) 청주에서, 1626년(인조4) 영광에서 판각되는데,『가례의절』의 도입과 유행이 7권본『가례』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0] 무술년본『가례』의 일부를 살펴보면 우측과 같다.

〈무술년본[7권]〉
간행: 1658(삼척부, 경성부)



이후 조선에서의『가례』판본은 모두 무술년본과 같은 7권본의 형태를 띤다. 1726년[병오(丙午)] 함경감영(咸鏡監營)에서 역시 7권본의『가례』가 간행된다.[11] 그런데 이 판본의 특징적인 부분은 난상(欄上)에 본문의 오탈자 및 오류를 판정하고 교정 사항을 적시한 총 72건의 두주(頭註)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두주는 당시 통용되던 여러 판본을 비교・대조하고,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등 조선의 학자들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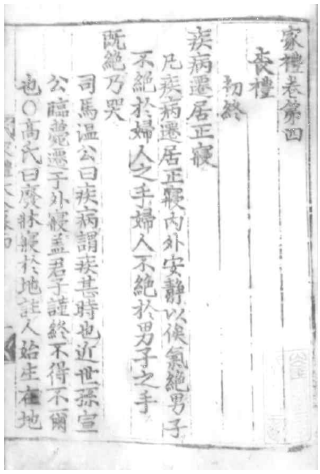
9)『가례의절』의 편차는 다음과 같다.「家禮儀節序」「文公家禮序」/ ①「通禮」/ ②「冠禮」/ ③「昏禮」/ ④「喪禮」初終-成服 / ⑤「喪禮」朝夕哭奠-反哭 / ⑥「喪禮」虞祭-改葬 / ⑦「祭禮」/ ⑧「家禮雜儀」「家禮附錄」『가례의절』의 세부 구성에 대해서는 정현정, 앞의 글, 2012, 13면 참조.

10) 최경훈, 앞의 글, 22-23면; 장동우, 앞의 글, 2010a, 19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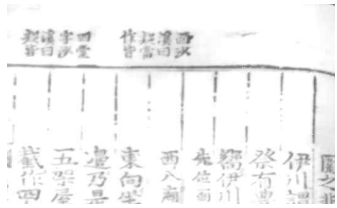
11) 본 논문에서는 이 판본을 '병오년본'으로 칭하고자 한다. 소장처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이다.(청구기호: CL 395 주희 가v1; CL 395 주희 가v2; CL 395 주희 가v3)

이루어진『가례』연구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앞선 무술년본이 성리대전본과 내용상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성리대전본과 병오년본을 비교해 보면 본문 전체에 걸쳐 수정된 글자와 어구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병오년본『가례』및 그 두주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오년본[7권]〉
간행: 1726(함경감영)



〈병오년본 두주 예시①〉
「통례(通禮)」편 사당(祠堂)장



〈병오년본 두주 예시②〉
「통례」편 사당장



무술년본이 간행된 지 100여 년, 그리고 병오년본이 간행된 지 30여 년 만인 영조35년(1759) 2월, 홍계희(洪啓禧, 1703-1771)는『가례』를 새롭게 간행할 필요성에 대해 조정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신은 서책에 대한 일로 아뢸 것이 있습니다.『주자가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책인데 근년 이래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진사회시 때의 학례강 또한 임박하였기에 그 전에 신이 반드시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물자를 마련하기가 어렵고, 진헌(進獻)하고 진상(進上)하는 건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조에서는 혹 어렵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이 책은 분량이 많지 않으니 호조에 분부하여 물자를 조금 도와 속히 인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2]

‘『가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영조가 『가례』의 책판이 영남 지역에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자, 이에 홍계희는 그것이 다 닳아버렸다고 대답한다. 영남에 있었던 『가례』의 책판이 어떤 판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가례』 판본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던 듯하다. 홍계희의 건의는 즉시 받아들여져서, 바로 이 해인 1759년[기묘(己卯)] 『가례』는 운각(芸閣: 校書館)에서 무신자(戊申字) 활자본으로 간행된다.[13] 기묘년에 운각에서 간행된 이 판본, 즉 ‘기묘운각본’ 『가례』는 무술년본 이래의 일반적인 체제인 7권의 편차로 이루어져 있고, 앞선 병오년본과 마찬가지로 성리대전본과 비교할 때 교정된 부분이 다수 있으며 본문에 대한 교감 사항을 총 75건의 난상 두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기묘운각본에는 병오년본에 없는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어 있는데, 바로 첫머리의 「가례도(家禮圖)」 말미에 명(明)의 구준과 조선의 김장생이 「가례도」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수록한 부분이다. 일찍이 구준은 『가례의절』에서 『가례』 위작설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명대 당시 통용되던 『가례』 판본에 실린 그림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가례』에 첨부된 그림들에서 『가례』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6건을 지적하고, 그 그림들은 주희의 저작이 아니라 후인에 의해 덧붙여진 것임을 논증하였다. 성리대전본 『가례』의 「가례도」에서 구준의 지적 사항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준이 문제 삼은 판본은 성리대전본 『가례』이거나 그와 유사한 판본일 것으로 짐작된다. 김장생은 조선에서 「가례도」의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룬 첫 인물이다. 그는 『가례집람(家禮輯覽)』에 구준의 지적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어서 『가례』 본문과 「가례도」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 15건을 추가로 드러내었다.[14] 기묘운각본 『가례』는 「가례도」 뒷부분에 구준과 김

12) 『承政院日記』 1165책(탈초본 65책) 영조35년 2월 5일 병진 기사. “臣以書冊事, 有所仰達矣. 『朱子家禮』, 此是不可無之冊子, 而近歲以來, 絶無而僅有. 進士會試時, 學禮講, 亦將迫近, 而其前臣必欲印出, 物力旣難辦得, 不可無進獻進上之件. 戶曹雖或爲難, 此冊秩數不多, 分付戶曹, 略助物力, 斯速印出, 何如?”

13) 장동우는 이 판본을 ‘무신자본’이라고 칭하였다. 장동우, 앞의 글, 2010a, 199면. 본 논문에서는 이 판본의 간행 시기와 주체를 드러내어 ‘기묘운각본’으로 칭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원문보기가 가능하다.(청구기호: 古52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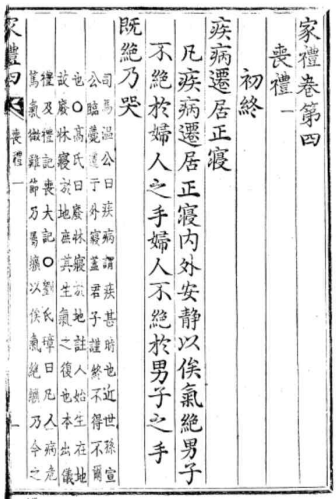
14) 구준과 김장생의 「가례도」 비판에 대해서는 정현정, 앞의 글, 2015, 256-263면 참조.

장생의 언설을 수록함으로써「가례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기묘운각본『가례』와 그 두주의 일부, 그리고 구준과 김장생의「가례도」비판이 실린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묘운각본[7권]〉

간행: 1759(운각)



家禮卷第四

喪禮一

初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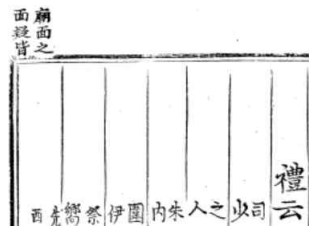
疾病遷居正寢

凡疾病遷居正寢內外安靜以俟氣絶男子不絶於婦人之手婦人不絶於男子之手

既絶乃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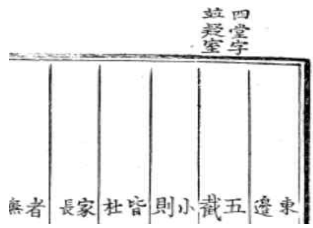
〈기묘운각본 두주 예시①〉

「통례」편 사당장



〈기묘운각본 두주 예시②〉

「통례」편 사당장



〈기묘운각본 두주 예시③〉

「통례」편 사당장



〈기묘운각본의「가례도」비판〉

「가례도」뒷부분



기묘운각본『가례』는「가례도」에 대한 구준과 김장생의 비판적 입장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문에 대한 교감 내용을 두주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대 구준의 연구를 계승하면서도 당시까지 진전된 조선 예학의 성과를 통해 비판적으로 극복한 조선『가례』연구의 결정판'으로 여겨진다.[15]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기묘운각본의 두주가 병오년본의 두주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유사성과 연속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항목에 대해 동일한 교감 내용이 달려 있으면서도 그 표기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상례」편 영좌(靈座)·혼백(魂帛)·명정(銘旌)장 입명정(立銘旌)조 "5품 이상은 8척이다.[五品以上八尺]"라는 구절의 '상(上)'자에 대한 병오년본의 두주에서 "'상(上)'자는 다른 판본에 '하(下)'자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上', 他本作'下', 非]"라고 하여 다른 판본의 오류를 뚜렷이 드러내었다면, 기묘운각본은 "'상(上)'자는 어떤 판본에 '하(下)'자로 되어 있다.['上', 一作'下']"라고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통례」편 사당장 "뒤의 가(架)로 하나의 긴 감당을 만들고 판자로 막아 네 개의 감당을 만든다. 당에는 위패를 두고 당 밖에는 발을 드리운다.[以後架作一長龕堂, 以板隔截作四龕堂, 堂置位牌, 堂外用簾子]"라는 구절에 네 번 등장하는 '당(堂)'자들에 대한 두주에서 병오년본이 "네 개의 '당(堂)'자에 대하여 사계는 '모두 실(室)자가 되어야 하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四'堂'字, 沙溪曰: "疑皆當作'室'"]"라고 하여 본문의 오자를 지적한 인물을 명시하였다면, 기묘운각본은 "네 개의 '당(堂)'자는 모두 '실(室)'인 것 같다.[四'堂'字, 並疑'室']"라고 표기하고 있다.

병오년본과 기묘운각본의 두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삽입된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묘운각본의 두주가 병오년본의 두주를 상당 부분 참고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 없다. 물론 72건에서 75건으로 약간의 양적 증가가 있었고, 기묘운각본이 조정에서 간행된 것인 만큼 두주의 표현 방식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바뀌었으리라고 추정해

15) 장동우, 앞의 글, 2010a, 200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성리대전본 『가례』는 조선에서 『가례』 연구와 실천의 기본 텍스트였지만, 그대로 답습되지만은 않았다. 성리대전본-가례대전본-무술년본-병오년본-기묘운각본에 이르는 판본들은 체제에서, 그리고 세부 내용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조선에서 『가례』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성리대전본 『가례』를 객관화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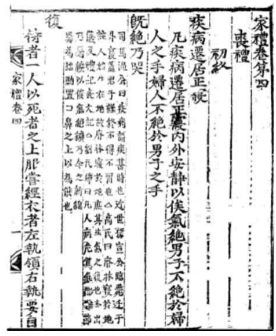
3. 조선본 『가례』와 조선 시대 『가례』 연구

『성리대전』 도입 이후 조선에서의 『가례』 간행은 저본이었던 성리대전본 『가례』를 변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것은 체제의 측면에서 편장의 변화, 그리고 세부 내용의 측면에서 개별 글자와 어구의 교정으로 구체화 되었다. 특히 1726년의 병오년본과 1759년의 기묘운각본은 조선에서 진행된 『가례』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리대전본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 두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른바 '조선본 『가례』'라고 칭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병오년본과 기묘운각본 『가례』의 본문 교정 및 두주는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병오년본이 없었더라면 기묘운각본 또한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다만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글자나 어구의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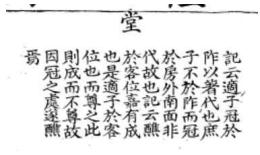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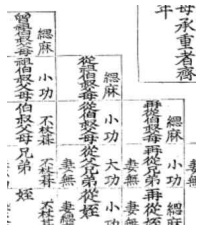
16) 기묘운각본 이후 조선에서 『가례』가 공식적으로 간행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기묘운각본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기묘운각본 이후의 판본으로 1917년 전주 칠서방(七書房)에서 간행된 방각본 『가례』를 볼 수 있다. 이 판본을 '칠서방본'으로 칭하고자 한다. 칠서방본 『가례』는 무술년본 이래의 7권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성리대전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병오년본, 기묘운각본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다수의 오탈자가 발견되기도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원문보기가 가능하다.(청구기호: 古朝29-67) 칠서방본 『가례』의 일부를 살펴보면 우측과 같다.

〈칠서방본[7권]〉/간행: 1917(전주)



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조의 차이, 그리고 기존 판본의 문제점을 지적한 학자를 명시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차이 등 두주 표기 방식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는 병오년본이 조선 시대『가례』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판본에 적극적이고 뚜렷하게 반영하는 단계에 있었으며, 그 이해의 성숙과 일반화가 기묘운각본 두주의 양식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렇듯 조선 시대『가례』연구 진전의 추이를 시사하는 병오년본과 기묘운각본의 두주 전체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병오년본・기묘운각본『가례』의 두주 현황

편차		『가례』 본문	병오년본 두주 (총72건)	기묘운각본 두주 (총75건)
家禮圖	行冠禮圖			堂, 恐室.
	本宗五服之圖		從祖, 當作再從.	從祖, 當作再從.
			祖姑嫁無, 當作緦麻.	祖姑嫁無, 當作緦麻.
			姑嫁小功, 當作大功.	姑嫁小功, 當作大功.
			從姉妹嫁緦麻, 當作小功.	從姉妹嫁緦麻, 當作小功.
家禮序		則又略浮文敦本實	敦, 他本作敷, 非.	敦, 一作敷.
		若祭禮祭始祖、先祖	先, 他本作初, 非.	先, 一作初.
通禮	祠堂	古人所以廟面東向坐者	面, 沙溪曰疑當作皆.	廟面之面, 疑皆.
		以後架作一長龕堂, 以板隔截作四龕堂, 堂置位牌, 堂外用簾子	四堂字, 沙溪曰疑皆當作室.	四堂字, 並疑室.

편차		『가례』 본문	병오년본 두주 (총72건)	기묘운각본 두주 (총75건)
		主式見喪禮治葬章	治葬章, 他本作及前圖, 非.	治葬章, 一作及前圖.
		別子者, 謂諸侯之弟, 別於正適	於, 他本作爲.	於, 一作爲.
		魯季友乃桓公別子所自出	所自出三字, 朱子曰衍文.	所自出, 朱子曰衍文.
		只是正排看正面	看, 沙溪曰疑當作着.	看, 疑著.
		大宗以下又不得而祀之也		以, 一作而.
		兄弟嫂、妻、婦, 則祔於祖母之傍	於祖下, 疑脫父字.	於祖下, 疑脫父字.
		主人盥帨升	帨, 他本作洗, 非.	帨, 一作洗.
		莫亦只祭得四代	他本四代下, 有但四代三字.	四代下, 一有但四代三字.
	深衣制度	交映垂之如燕尾狀	映, 他本作脚.	映, 一作腳.
		復又取《禮記・深衣》篇熟讀之	復, 他本作後.	復, 一作後.
	司馬氏 居家雜儀	始敎之謙讓	他本敎之下有必.	敎之下, 一有必.
昏禮	親迎	人何故不行	故, 他本作苦.	故, 一作苦.
		世俗新壻帶花勝		帶, 書儀作戴.
		以燭前導	他本以下有二字.	以下, 一有二字.
		女從者沃, 壻盥於南	於, 他本作于.	
		彗, 謂牢瓢	牢, 他本作半.	牢, 本疏作半.
	婦見舅姑	婦旣受禮	受, 他本作行.	受, 一作行.
		俟舅飮畢, 又拜	又拜之拜, 愚伏曰疑升.	又拜之拜, 疑升.
喪禮	初終	余嘗見前人葬墓, 掩壙之後	壙, 他本作盖.	
	沐浴, 襲, 奠, 爲位, 飯含	婦人坐於帷外之西		外, 一作內.
	靈座, 魂帛, 銘旌	五品以上八尺	上, 他本作下, 非.	上, 一作下.
		此則中智所共知	中, 他本作愚.	
	小斂袒, 括髮, 免, 髽, 奠, 代哭	凡物束斂緊急		斂, 一作練.
		當去冠梳	梳, 愚伏曰疑旒.	梳, 疑旒.
	大斂	以爲堅之急也	之, 他本無.	
	成服	此則衣身所用布之處與裁之之法也	處, 他本作度.	處, 一作度.
		共以八十縷爲一升	共, 他本作其, 非.	共, 一作其.
		有幅三袧者	有, 他本作云.	
		故一幅布凡三處屈之	屈, 他本作屬, 非.	屈, 一作屬.
		外屈於父	父, 他本作天, 或作夫.	父, 一作天.

편차		『가례』 본문	병오년본 두주 (총72건)	기묘운각본 두주 (총75건)
		嫁母爲前夫之子從己者也		嫁母之母, 一作而.
		爲人後者爲其父母報		報, 一作服.
		妻族二		二, 一作一.
	朝・夕哭、奠、上食	畢, 主人以下奉魂帛, 入就靈座	補註, 座作床.	
		不用金銀錢飾	錢, 沙溪曰疑作鏤.	錢, 疑鏤.
	聞喪, 奔喪	又哭盡哀, 問故	問故二字, 他本在使者下.	問故, 一在使者下.
		變服	沙溪曰, 變, 成字之誤.	變, 疑成.
	治葬	帥執事者於所得地掘穴		穴, 一作兆.
		深葬有水		葬, 一作皆.
		歲久結而爲全石	全, 他本作金.	全, 一作金.
		樹根遇炭皆橫轉去	橫, 他本作生.	橫, 一作生.
		禮壙中用牲體之屬	牲, 他本作生, 非.	牲, 一作生.
		禮文之意大備		備, 一作簡.
		猶有蟻子入去	有, 他本作自, 非.	有, 一作自.
		某官某公之墓		某官上, 一有有宋二字.
		母氏某封	他本母下有某字.	母下, 一有某字.
		以木爲匡		匡, 一作筐
	遷柩, 朝祖, 奠, 賻, 陳器, 祖奠	則其禮無所施, 然又不可全無節文	施下, 他本有然字.	施下, 一無然字.
	及墓, 下棺, 祠後土, 題木主, 成墳	故某官某公諱某字某第幾神主		故上, 一有宋字.
	虞祭	具饌如朝奠	沙溪曰, 朝疑朔.	朝, 疑朔.
		其設之敍如朝奠	朝, 沙溪曰朔.	朝, 疑朔.
	卒哭	同虞祭	他本作再虞, 非.	虞祭, 一作再虞.
		其衰無變	衰, 他本作哀, 非.	衰, 一作哀.
	祔	還奉新主	新, 他本作神, 非.	新, 一作神.
	小祥	置練服於其中	服, 沙溪曰疑布.	
	大祥	未大祥間假以出謁者	假, 他本作服.	假以之假, 一作服.
		婦人冠、梳	梳, 愚伏曰疑旒.	梳, 疑旒.
		當俟吉祭前一夕以薦告	吉, 他本作告.	吉, 一作告.
		奉祧主埋於墓所	祧, 他本作神, 非.	
	禫	果能始卒一一合於古禮	古, 他本作曲, 非.	古, 一作曲.
祭禮	四時祭	適其祖考, 尙饗	饗, 他本作享,	

편차		『가례』 본문	병오년본 두주 (총72건)	기묘운각본 두주 (총75건)
			下初獻條同.	
		設盥盆帨巾各二於阼階下之東	盆, 他本作盤.	盆, 一作盤.
		搢笏焚香	焚香下, 疑脫再拜二字.	焚香下, 疑脫再拜二字.
		取高祖考盞	他本考下有妣字.	考, 一作妣.
		皆如高祖考妣之次	高, 或疑曾, 更詳之.	
	初祖	具蔬果楪各六	他本具下無果字, 楪下無各字.	具下, 一無蔬字.
				楪下, 一無各字.
		或用紫褥	紫, 他本作累, 非.	
		凡十二體	二, 他本作一.	二, 一作一.
		切肉一小盤	一, 他本作二.	一, 一作二.
		十一體實烹具中(병오년본) 十二體實烹具中(기묘운각본)	一, 他本作二.	二, 一作一.
	先祖	大盤六, 小盤六	盤六之六, 他本作四.	上六, 一作四.
		盤、盞各二	二, 疑一.	二, 疑一.
		瘞毛血	瘞, 疑進.	瘞, 疑進.
		當中少退立	退, 他本或無.	少下, 一無退字.
	忌日	如帖複相似	如, 他本作與.	
	墓祭	則寒食在家亦可祀祭	祀, 他本作祠.	祀, 一作祠.
		士女徧滿	女, 他本作友.	女, 一作友.

병오년본의 두주 72건과 기묘운각본의 두주 75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다양한 판본 간 자구의 차이점을 밝히거나 ②본문의 오류와 오탈자를 지적하거나 ③『가례』 본문 가운데 다른 문헌들로부터 인용된 구절을 원출처와 비교하고 교감하는 등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①다양한 판본 간 자구의 차이점을 밝히는 유형'은 병오년본과 기묘운각본의 두주 가운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병오년본과 기묘운각본 모두 비교 대상이 되는 판본을 명시하지는 않고 '다른 판본에는 (…)라고 되어 있다.[他本作(…)]' 혹은 '어떤 판본에는 (…) 라고 되어 있다.[一作(…)]' 정도로 표기하고 있다. 실제로 성리대전본, 송각본, 주자성서본, 무술년본 등 주요 판본들에서 해당 사항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는데,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通禮」 祠堂章 "爲四龕, 以奉先世神主" 本注 "主式見喪禮治葬章"
【병오년본 두주】 '治葬章', 他本作'及前圖', 非.
【기묘운각본 두주】 '治葬章', 一作'及前圖'.

판본 비교	宋刻本	朱子成書本	性理大全本	戊戌年本
	治葬章	及前圖	及前圖	及前圖

병오년본과 기묘운각본에서 「통례」 사당장 "네 개의 감실(龕室)을 만들어 선대의 신주를 봉안한다."에 대한 본주(本注)의 끝부분은 "신주의 형식에 대해서는 「상례」편 치장장을 보라."라고 되어 있다. 두 판본에서 이 본주에 달린 두주는 각각 "'치장장을[治葬章]'은 다른 판본에 '및 앞의 그림을[及前圖]'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병오년본), "'치장장을[治葬章]'은 어떤 판본에 '및 앞의 그림을[及前圖]'이라고 되어 있다."(기묘운각본)라고 밝힌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준은 『가례의절』에서 당시 통용되던 판본에 수록된 「가례도」에 대하여 비판하였는데, 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 부분을 든 바 있다.

> 어떤 사람이 "진실로 「가례도」는 주자의 작품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사당장 아래에 '신주의 형식에 대해서는 「상례」편 및 앞의 그림을 보라'라는 말이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내가 보니 남옹(南雍)의 옛 『가례』 판본에는 단지 "신주의 형식에 대해서는 「상례」편 치장장을 보라[主式見喪禮治葬章]"라고만 되어 있고, "앞의 그림을 보라[見前圖]"는 말은 없었다. 근래의 판본이 무엇에 의거하여 '치장장'을 '앞의 그림을 보라'로 고치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를 근거로 추측해본다면 그림은 후인들에 의해 덧붙여져 들어간 것이 틀림없다.[17]

이에 따르면 『가례』의 '옛 판본'에는 "신주의 형식에 대해서는 「상례」편 치장장을 보라."라고 쓰여 있지만, 구준 당시 '근래의 판본'에서는 "신주의 형식에 대해서는 「상례」편 및 앞의 그림을 보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

17) 「文公家禮序」, 『家禮儀節』. "或問: '圖固非朱子作矣, 何以祠堂章下有'主式見喪禮及前圖'八字?' 曰: '南雍舊本止云'主式見喪禮治葬章', 並無'見前圖'三字, 不知近本何據改'治葬章'三字爲'見前圖'也. 由是推之, 則圖爲後人贅入, 昭然矣.'"

즉 본래의 『가례』 판본에서 신주의 격식에 관한 내용이 「상례」편 치장장에 속해 있었는데, 후인들에 의해 여러 종의 그림이 제작되어 기존의 그림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책의 첫머리에 덧붙여지면서 본문 내용에 대해 임의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현전하는 가장 이른 『가례』 판본인 송각본을 보면 "「상례」편 치장장을 보라."라고 되어 있는 반면, 28종의 「가례도」가 실려 있는 주자성서본, 성리대전본, 그리고 조선의 무술년본에는 "「상례」편 및 앞의 그림을 보라."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병오년본에서는 송각본과 동일하게 교정되고 두주에 판본 간의 차이점으로 표기되었으며, 이는 그대로 기묘운각본에 이어진 것이다. 이로부터 조선에서 성리대전본을 『가례』의 저본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가례』의 본모습을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또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 송각본 『가례』를 직접 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시 『가례』의 대표격이었던 성리대전본을 다시 '본래 판본'의 면모로 되돌리는 시도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 작업의 연원을 추적해봄에 있어 『가례』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고증하여 그 의미를 명료화하고자 한 조선 시대 『가례』 주석서들이 단서를 제공해준다.

특히 『가례』에 대한 '최초의 완정한 조선식 고증서'라고 할 수 있는 유계(兪棨, 1607-1664)의 『가례원류(家禮源流)』[18]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주석을 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례원류』는 성리대전본과 동일하게 이 부분의 본주를 '주식견상례급전도(主式見喪禮及前圖)'로 두고, 그 아래에 앞 인용문의 내용이 포함된 구준의 「가례도」 비판 전체를 주석으로 덧붙인다. 이는 『가례』 연구의 진전 및 『가례의절』 등과 같은 관련 문헌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가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고증, 그리고 상세한 주석으로 구체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조선의 『가례』 연구자들은

18) 『가례원류(家禮源流)』는 『가례』의 본문과 본주, 부주 전체를 기록하여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례(古禮) 및 이전까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가례』 연구성과를 풍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례』에 대한 최초의 '완정한 조선화된 주석서'로 평가된다. 장동우, 「『家禮』 註釋書를 통해 본 朝鮮 禮學의 進展過程」, 『동양철학』 제34호, 한국동양철학회, 2010b, 252-253면.

비록 『가례』의 '옛 판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본모습의 변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고, 이는 판본의 측면에서 성리대전본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이라는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사례2]
「通禮」 祠堂章 "正、至、朔、望, 則參" 本注 "立定, 主人盥帨巾"
【병오년본 두주】 '帨', 他本作'洗', 非.
【기묘운각본 두주】 '帨', 一作'洗'.

판본 비교	宋刻本	朱子成書本	性理大全本	戊戌年本
	帨	帨	帨	洗

「통례」 사당장 "설날, 동지, 초하루, 보름에는 참례(參禮)를 한다."에 대한 본주 가운데에 "서는 것이 정해지면 주인은 손을 씻고 수건에 닦는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손을 씻고 수건에 닦는다[盥帨巾]'는 것은 대야에 담긴 물에 손을 씻고[盥] 물기를 수건에 닦는[帨巾]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병오년본의 두주는 "'세(帨)'는 다른 판본에 '세(洗)'라고 되어있는데,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기묘운각본의 두주는 "'세(帨)'는 어떤 판본에 '세(洗)'라고 되어있다."라고 하고 있다. 즉 '세건(帨巾)'을 '세건(洗巾)'으로 잘못 표기한 판본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무술년본에 '세건(洗巾)'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례는 당시 조선의 여러 『가례』 판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②본문의 오류와 오탈자를 지적하는 유형'의 경우, 특히 병오년본을 통해 김장생, 정경세 등 앞선 시기 학자들의 『가례』 연구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장생의 『가례집람』에서 병오년본 및 기묘운각본의 두주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한 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사례3]
「通禮」 祠堂章 附注 "古人所以廟面東向坐者"

家禮輯覽	退溪曰: "'面', 恐當作'必', 或作'皆'."

【병오년본 두주】'面', 沙溪曰: "疑當作'皆'."
【기묘운각본 두주】'廟面'之'面', 疑'皆'.

「통례」 사당장 도입부의 부주(附注)에는 "옛사람들이 묘(廟)를 동쪽을 향하여 앉힌 것은[古人所以廟面東向坐者]"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이 속한 문단은『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인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송각본이나 주자 성서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성리대전』성립 과정에서 삽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김장생은『가례집람』에서 이 구절의 '면(面)'자에 대해 일찍이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필(必)'자나 '개(皆)'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고인소이묘면동향좌자(古人所以廟面東向坐者)'는 '고인소이묘필동향좌자(古人所以廟必東向坐者)' 혹은 '고인소이묘개동향좌자(古人所以廟皆東向坐者)'라고 해야 옳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가례원류』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주석으로 실려 있다.[19]

병오년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본문의 '면(面)'자를 수정하지는 않으면서, 이에 대한 두주로 "'면(面)'자에 대하여 사계는 '마땅히 개(皆)자가 되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김장생이 이미 '면(面)'자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근거를 이황의 언급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오년본은 이를 김장생의 견해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묘운각본은 병오년본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면(面)'자를 수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두주에서 "'묘면(廟面)'의 '면(面)'자는 '개(皆)'인 것 같다."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이는 혹시 병오년본의 두주가 '면(面)'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초의 인물이 김장생이라고 오인하게끔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기묘운각본의 단계에서 이 구절의 '면(面)'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특정 학자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로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조선에서『가례』에 대한 이해가 글자와 어구 차원에서부터 세밀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가례』연

19)『家禮源流』通禮 祠堂. "古人所以廟面【退溪曰: ''面', 恐當作'必', 唐本亦作'面', 然'面'字終可疑, 但恐作'皆'.'】"

구가 공유, 계승되어 하나의 일반적인 이해의 지평을 이루어 갔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③『가례』 본문 가운데 다른 문헌들로부터 인용된 구절을 원출처와 비교하고 교감하는 유형'의 경우, 병오년본에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기묘운각본의 두주 75건 가운데 적은 수를 차지하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4]
「昏禮」 親迎章 "初昏, 壻盛服" 本注 "世俗新壻帶花勝"
【기묘운각본 두주】 '帶', 『書儀』作'戴'.

「혼례」 친영장 "초저녁에 신랑은 의복을 갖추어 입는다."에 대한 본주에는 "세속에서는 새신랑이 화관을 두르고[世俗新壻帶花勝]"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의 '대(帶)'자에 대하여 기묘운각본의 두주에서는 "'대(帶)'자는 『서의(書儀)』에 '대(戴)'라고 되어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 본주의 출처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서의』에는 "세속에서는 새신랑이 화관을 성대하게 머리에 올리고[世俗新壻盛戴花勝]"라고 되어 있다. 즉 '대(帶)'가 아니라 '대(戴)'인 것이다. 기묘운각본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문의 글자를 직접 수정하지는 않으면서 두주를 통해 정확한 전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 사례는 『가례』 자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연원이 되는 문헌들을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서의』에 근거한 '대(帶)'자에 대한 교감은 『가례집람』, 『가례원류』 등 기존의 『가례』 주석서들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선 1726년의 병오년본에서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서의』의 유통과 간행에 관한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가례』 연구에서 『서의』는 빈번하게 인용되었지만 17세기까지 『서의』는 직접 유통되지 못하고 다른 서적들을 통해 재인용되었을 뿐으로, 조선에서 『서의』의 수입 및 간행은 18세기 중반에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20]

20) 김윤정, 「18세기 조선본 『서의(書儀)』의 간행과 그 예학사적 의미」, 『국학연구』 제33호, 한국국학진흥원, 2017, 380-385면; 한재훈, 「『가례(家禮)』 제주조(題主條) '독필회지(讀畢懷之)'에 대한 해

그렇다면 1759년의 기묘운각본에서 전에 없던『서의』에 근거한 상세한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서의』의 수입과 유통에 따라 실시간으로 정밀한 분석이 진행되었고 그 성과가 빠르게『가례』판본에 반영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기묘운각본이 많은 부분 병오년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30여 년이라는 시차 속에서 새롭게 주어진 정보와 자료들은 분명 보다 진전된 이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고, 이는 병오년본과 기묘운각본의 차이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사례들과 같은 두주들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에서 다양한『가례』판본들이 통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판본의 상이한 부분들 가운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판별해 낼 수 있고 본문의 문제점과 특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 역량이 축적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묘운각본, 그리고 그것의 전단계로 추정되는 병오년본의 등장은 그 시기 조선에서『가례』의 내용 및 그와 연관된 각종 문헌, 제도, 기물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 판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리대전본보다 진전된『가례』의 정본(定本)을 마련해간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조선 시대에 성리대전본『가례』는『가례』연구와 실천의 대표적인 저본이었지만 그대로 답습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성리대전』의 도입 이후 조선에서 간행된『가례』판본들은 공통적으로 성리대전본『가례』에 의거하고 있으면서도 체제에서, 그리고 세부 내용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성리대전』에서「가례」부분만 독립된 4권본의『가례대전』이 등장한다. 이후 1658년 간행된 '무술년본'에서는 기존의 4권 체제에서 7권 체제로 변형이 이루어진다. 1726년에 역시 7권본의『가례』가 간행되는데, 이 '병오년본'에는 본문의 오탈자와 오류를 판정하고 본문에 대한

석(解釋)과 논변(論辨)」,『퇴계학보』제140호, 퇴계학연구원, 2016, 143-144면.

교정 사항을 적시한 72건의 두주(頭註)가 기록되어 있다. 이 두주는 여러 『가례』 판본을 검토하고 조선 학자들의 『가례』 연구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1759년 『가례』는 운각(芸閣)에서 무신자 활자본으로 간행된다. 이 '기묘운각본' 역시 7권의 편차로 이루어져 있고, 성리대전본과 비교할 때 교정된 부분이 다수 있으며 본문에 대한 교감 사항을 75건의 두주로 표시하고 있다. 또 기묘운각본의 「가례도」 뒷부분에는 명(明)의 구준과 조선의 김장생이 「가례도」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성리대전본-가례대전본-무술년본-병오년본-기묘운각본에 이르는 판본들은 조선에서 『가례』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성리대전본 『가례』를 객관화하고 보다 진전된 『가례』 정본을 마련해가고자 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5종의 『가례』 가운데 특히 병오년본과 기묘운각본은 조선에서 진행된 『가례』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리대전본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 두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조선본 『가례』'라고 칭할 만하다. 병오년본과 기묘운각본 『가례』의 본문 교정 및 두주는 상당한 유사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례』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점차 일반적인 이해로 성숙해가는 추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두주들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다양한 『가례』 판본들 및 관련 문헌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소화할 수 있고 개별 글자와 어구의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교정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확보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 『가례』 연구의 중요한 결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承政院日記』,『太宗實錄』.

丘濬(明),『家禮儀節』.
金長生,『家禮輯覽』.
兪 棨,『家禮源流』.

김윤정,「18세기 조선본『서의(書儀)』의 간행과 그 예학사적 의미」,『국학연구』제33호, 한국국학진흥원, 2017, 377-407면.
아즈마주지(五妻重二), 이승연 번역,「『家禮』의 刊刻과 版本:『性理大全』까지」,『동양예학』제4호, 동양예학회, 2000, 43-84면.
장동우,「『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동전(東傳) 판본(版本) 문제를 중심으로」,『국학연구』제16호, 한국국학진흥원, 2010a, 183-206면.
_____,「『家禮』註釋書를 통해 본 朝鮮 禮學의 進展過程」,『동양철학』제34호, 한국동양철학회, 2010b, 239-269면.
정현정,「구준(丘濬)『가례의절(家禮儀節)』의『가례(家禮)』재구성에 대한 고찰」,『대동문화연구』제78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5-35면.
_____,「조선(朝鮮)에서「가례도(家禮圖)」이해의 흐름」,『한국실학연구』제30호, 한국실학학회, 2015, 251-288면.
최경훈,「朝鮮時代 刊行의 朱子 著述과 註釋書의 編纂」,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9.
한재훈,「『가례(家禮)』제주조(題主條) '독필회지(讀畢懷之)'에 대한 해석(解釋)과 논변(論辨)」,『퇴계학보』제140호, 퇴계학연구원, 2016, 129-160면.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Family Rituals*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Chung, Hyun-Jung*

The *Family Rituals* in *the Great Compendium on Human Nature and Principle* was the basic material of *Family Rituals* stud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but the original text was constantly modified and revised. There are five different editions of *Family Rituals* published during the Joseon Dynasty that can identify the timing and region of publication, which show the improvement of *the Great Compendium on Human Nature and Principle* edition. In particular, the comments in the 1726 and 1759-Central Printing Office editions describe the error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text of *Family Rituals*. These comments were written through the review of various editions of *Family Rituals* and the reflection of Joseon-era *Family Rituals* studies. The 1726 and 1759-Central Printing Office editions show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 text of *Family Rituals*, and are the important fruit of *Family Rituals* studies in the Joseon Dynasty.

Keywords: *Family Rituals*, *The Great Compendium on Human Nature and Principle*, *Guide to Practicing Family Rituals*, 1759-Central Printing Office edition.

접수일: 2019.12.31. ‖ 심사일: 2020.01.13. ‖ 게재확정일: 2020.02.17.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